

■ 인터뷰/ 한국문화연수원장 초격스님

“세계적 수준의 연수원 만들겠다”

지난 9월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명칭을 바꾼 '한국문화연수원'은 개원 4년이라는 짧은 역사 속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명칭 변경과 함께 제2의 도약을 선언한 한국문화연수원 연수원장 초격스님을 지난 17일 만나 미래 청사진을 들어봤다.

지난 2009년 6월 문을 연 한국문화연수원은 매년 200~300%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개원 첫 해 6개월 간 연수인원 6000명에 3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올해는 3만명 이상의 인원에 21억원 매출을 자신하고 있다.

연수원이 처음 문을 열 당시, 종단 안팎은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매일 300명이 찾아와 겨우 운영수지를 맞출 수 있다는 격정이었다. 궁벽한 곳에 지어졌다는 위치 문제도 거론됐다. 하지만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다.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손익분기점을 찍었다. 이후 수익이 발생해 이월금을 적립하기 시작했다. 이제 연수원은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공간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 그 중심에 연수원장 초격스님이 있다.

지난해 7월 전통불교문화원 제4대 본부장으로 취임한 초격스님은 국내 최고 수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자신 있었다. “우선 종단 중앙연수원 시설이 있다는 것에 자랑스러웠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조성된 건물을 보며 연수원으로 서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감이 생겼다.”

전대 본부장 스님들이 이룩한 성과를 이어 받아 한층 업그레이드된

연수원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초격스님은 경영 마인드를 적극 발휘했다. 기존의 종단 건물과 달리 연수원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야 했다. 공간이 비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고스란

‘연수원’ 검색하면
한국문화연수원 노출
홍보 효과도 특특

힐링 트렌드 반영
맞춤형 프로그램 등

찾아가는 마케팅으로
기업체 일반 연수
전체 60%로 끌어올려

히 종단이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고자 발로 뛰었다. 그야말로 영업에 나선 것이다. 기업체를 찾아 홍보하고 컨설팅 회사에 자문을 구하는 노력으로 연수원을 찾아오도록 만들어갔다. 현재 기업체 및 일반 연수가 전체 연수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연수원 수익의 원천이 일반 및 기업체 연수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



발로 뛰는 세일즈를 운영철학으로 연수원을 이끌고 있는 초격스님.

하고 커다란 장애물이 존재했다. 명칭으로 인한 문제였다. ‘불교’라는 이름이 주는 부담감을 떨치지 못한 기업체가 많았다.

“이곳을 사찰이라고 여기는 기업 관계자들이 많았다.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하면서도 거부감 없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돼야 했다. 연수원의 가장 시급한 불사는 명칭변경이었다.” 명칭을 바꾼 후 2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 기업 실무자들이 상사에게 자신 있게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인터넷으로 ‘연수원’을 검색하면 한국문화연수원이 노출됨으로서 홍보 효과도 특특히 해내고 있다.

연수원은 명칭변경을 계기로 제2

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자체 프로그램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주변에 유흥시설이 전혀 없어 집중성이 담보돼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기업 관계자들이 이곳을 선호하는 이유다. 여기에 힐링이 대세인 현재 트렌드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삽입하면 그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 건강명상, 한방치유명상 등 정신 건강뿐 아니라 육체 건강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참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또 사찰음식교육관을 건립해 단계별로 교육하는 방안도 종단과 협의 중이다. “지금까지 운영을 고민했다면 그동안 쌓은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질적인 향상을 모색할 시기다. 수익금을 바탕으로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고급화 전략으로 맞춤형 연수프로그램을 시행한다면 세계적인 수준의 연수원이 될 것이다.”

제2의 도약을 통해 연수원은 종단 및 스님 연수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문화연수원의 성공은 종단이 수도권에 제2, 제3의 연수원을 건립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초격스님은 종단이 연수원을 일만 사찰과 똑같이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고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개원 5주년을 맞아 종단 스님과 관계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답하겠습니다.”

공주=김하영 기자 hykim@ibulgyo.com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노동조합 임원들이 지난 21일 처음으로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해 노동계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통합진보당·민주노총·이자스민 의원 ...

불교계 관심과 지원 ‘요청’

통합진보당 관계자들과 민주노총, 전교조 위원장 등이 잇달아 조계종을 방문해 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단식농성 중인 오병윤 원내대표, 김재연 의원은 지난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통합진보당의 이념이 얼마만큼 국민 정서에 부합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다”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게 답

답이지만 함께 지혜를 모아보자”고 격려했다. 이 대표는 “한국사회 갈등과 분단을 둘러싼 아픔이 깊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며 “좀 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

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진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노동조합 임원들이 처음으로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 노동계의 현실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데 노동위원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종교가 돼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필리핀 출신의 첫 ‘다문화 국회의원’인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초대형 태풍 하이옌으로 사상 최악의 피해를 겪고 있는 필리핀을 지원해 준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언론을 통해 후원도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도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필리핀 주민들이 용기를 냈으면 한다”고 위로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제21회 한국불교언론문화상 수상작 ▶1면에 이어

△TV부문 최우수상은 KBS 파노라마식극장 ‘제1편 대륙의 길-그리스 로마에서 경주까지, 제2편 구도의 집-모든 법은 하나로 돌아가고’가 선정됐다. 지난 9월6일, 13일 오후10시에 방영된 이 프로그램은 실크로드를 따라 발전해 온 불교의 사상적 진화를 석굴암 불상의 미술사적 발달과정에 비해 쉽게 풀어낸 점이 돋보였다. △TV부문 우수상은 스님들의 선 지침서인 <선문촬요>의 복각을 계기로 역사적 의의를 조명한 부산MBC의 ‘선문촬요, 마음속 부처를 읽다’(5월17일 오후11시

20분 방영)와 일제강점기 당시 진관사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펼쳤던 초월스님의 활약상을 그린 BTN의 ‘3·1절 특집-암흑속에 핀 화엄불국토, 초월의 일심교(一心敎)’가 각각 선정됐다.

△라디오부문 최우수상은 지난 5월17일 오후6시10분 방영한 울산MBC의 ‘부처님오신날 특집 마그마티강의 이별’이 선정됐다. 부처님 탄생지인 네팔을 여행하면서 느낀 감상을 현지 불교의 소개와 함께 입체적으로 그려 호평을 받았다. △라디오부문 우수상은 지난 8월5일, 6일

오전9시5분에 방송된 BBS의 다큐에세이 2부작 ‘라디오템플스테이-나를 위한 행복’ 1부 산사의 하루, 2부 생활 속 수행이 선정됐다.

이와 더불어 불교언론인상에는 조계종 미디어위원회장과 한국불교언론인회장을 맡고 있는 이동식 전 KBS 비즈니스 감사, 특별상에는 이창재 중앙대 교수가 연출한 다큐영화 ‘길 위에서’가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12월5일 오후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날 대상에 1000만원 △불교언론인상에 500

만원 △신문부문 최우수상에 500만원, 우수상에 200만원 △TV부문 최우수상에 500만원, 우수상에 200만원 △라디오부문 최우수상에 500만원, 우수상에 200만원 △특별상에 2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각각 전달된다.

지난 1993년 제1회 보리방송문화상을 첫 시상한 이래 2006년부터 종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불교언론문화상은 기존 방송분야에서 신문, 출판, 인터넷 부문으로 확대해 명실상부한 종합 언론문화상으로 자리매김했다.

힘내세요~

밀양송전탑 반대위원회
제19회 불교인권상 수상



불교인권위원 공동대표 진관스님(오른쪽)과 밀양 송전탑반대대책위 조정화 송영숙 씨(왼쪽)가 수상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형주 기자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스님 지원스님 한상범)는 제19회 불교인권상 수상자로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를 선정했다. 불교인권위는 지난 20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불교인권상 시상식 및 불교인권위 창립23주년 기념법회를 병행했다.

불교인권위는 “삶의 터전을 보전하려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며 “지구의 미래와 후손들의 생명을 위해 온몸을 불태우시는 어르

신들의 숭고한 뜻을 높이 사 지난 10여년 동안 국가와 한국전력의 횡포에 맞서 생존권 투쟁을 벌이고 있는 송전탑 대책위를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밀양지역 주민인 송영숙 씨는 “이번 인권상과 상금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작은 힘으로 공사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동안 관심을 가져주신 만큼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종교계가

적극 나서셨으면 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불교인권상은 우리 사회 인권신장을 위해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펼쳐온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해 공로를 치하하는 상으로, 1992년 1회 시상식에서 고(故)박종철 열사의 부친 박정기 씨가 수상한 것을 비롯해 정해숙 전 전교조 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최상재 전국 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 후원했다. 홍다영 기자

한국문화연수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전통불교문화원이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연수원이자 힐링 프로그램 전문운영기관인 전통불교문화원이 한국문화연수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2009년 6월 개원한 이래 한국문화연수원은 대표적인 불교계의 연수원으로서 또한 많은 사람들의 힐링과 휴식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문화연수원장 초 격

행복을 만드는 한국문화연수원, 2014년도 프로그램

- 단체 힐링 연수 프로그램 - 유쾌한 명상캠프
- 전통 불교 문화의 진수 - 템플스테이 문화 체험
- 참선 수행 프로그램 - 영원한 행복의 길 화두

승가 및 신도 연수
기업 및 단체 연수
개인 휴식형 스테이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문화연수원

문의 _ 041-841-5050
홈페이지 _ www.budcc.com
페이스북 _ www.facebook.com/topforest
트위터 _ www.twitter.com/budcc348
주소 _ 충남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로 1065